

전주시의원 2명, 5분발언 나서

최지은 의원, 신축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 도입 제안 천서영 의원, 급증하는 고독사 문제 세심한 지원 필요 주장... 보험 도입도

5일 전주시의회 제4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지은, 천서영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먼저 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은 전주시의 모든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 의무화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신축 건물과 관련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은 최하급인 5등급도 가능케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9월, 현재 전주시 ZEB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총 27개 건물로 그나마 에너지자립률 100%이상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은 찾아볼 수 없고, 에너지자립률 60%이상에 해당하는 3등급이 최고등급에 불과하다. 또한 입찰공고문 등을 보면 전주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 등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제시하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모든 신축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민간부문에 강력한 메



최지은 의원 천서영 의원

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한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천서영(국민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주시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및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고독사 통계 구축 및 관리, 공영장터 지원 확대, 사망자 주거지 및 유품 정리를 위한 고독사 보험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15년만 하더라도 27.2%였던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10년도

차 지나지 않은 2023년에 35.5%까지 치솟았다. 1인가구의 78.8%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실제 고독사 사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8.8%씩 증가했다.

전주시 또한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한 5개 분야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고독사가 발생한 이후 대처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적인 실정이다.

현재 전주시는 지역 고독사 발생 건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무연고사'에 대해서만 집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는 필수적이므로 고독사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대부분의 고독사 사망자는 장례 비용의 부담으로 최소한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므로 '공영 장터 지원 조례'의 본 목적으로 저소득층까지 장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사망자 주거지 및 유품 정리를 위한 고독사 보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기 기자

추석 연휴 491개 병·의원·526개 약국 문 연다

전주시, 빈틈 없는 추석 응급진료체계 운영... 응급의료기관 6곳 24시간 가동

전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14~18일)에도 응급환자 발생 및 진료 공백에 대비해 빈틈 없는 추석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추석 명절에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북대병원·예수병원·대자연병원·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고려병원 등 전주시역 6개 응급의료기관 등 총 491개 병·의원과 526개 약국이 문을 열 예정이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의 의료공백 및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6개소 △병·의원 491곳 △심야약국 3곳(사망약국·열약국·인후대형약국)을 포함한 약국 526곳 △달빛어린이병원 3곳(대자연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맑은연호소아청소년의원) △코로나19 발원클리닉 1곳(전주

다솔아동병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3개 보건진료소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비상 진료를 실시한다.

특히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보건소 비상진료 상황실을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각각 설치·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별 전담책임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동시에, 진료 가능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063-281-6200, 063-250-3900) 및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보건소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비상대응반 및 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비한 비상 방역 근무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감염병 보고 및 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단 실사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 근무 및 비상 연락 체계

를 가동하게 된다.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의 '추석연휴 통합정보 안내'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onju.go.kr),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를 맞아 타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e-gen)' 앱(App)을 통해 문을 여는 전국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응급' 또는 '응급의료' 등으로 검색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연휴 기간 전주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귀성객, 관광객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진료 상황실 및 감염병 비상대응반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기후재난 극복 청사진 마련 '속도'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재화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하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행하고 평가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시는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계획기간(2020~2024) 종료로 도래함에 따라 현재 향후 5개년(2025~2029)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공동수행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전주시 정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성과평가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 여건 분석 △지역 리스크 도출 △중점분석 진단 및 제3차 계획 방향 설정 등 그간 용역 추진



전주시는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재화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사항을 발표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추진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강·국토·물관리·생태계 등 6개 부분의 기후 취약성과 리스크 평가를 반영, 시민들의 기후 위기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올

여름(6월~8월) 열대야일수가 20.2일로 과거 최악의 폭염으로 알려진 1994년·2018년보다 길게 나타는 등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전주시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추석 연휴 28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주말부터 추석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명절 연휴 기간 귀성객과 시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공단은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자정까지 5일간 한옥마을 주차장(1, 2, 3, 노상)과 시내 오거리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28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모두 무료로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한옥마을 등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주차장 5곳을 제외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다.

공단은 명절 연휴 귀성객과 시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료 개방 주차장 수를 꾸준히 늘려 왔다.

6개에 불과했던 무료 개방 주차장 수를 지난해 설 연휴 12개로 늘렸고,

또 그해 추석에도 2배로 늘려 명절 연휴 기간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과 도심 대학가,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이들 주차장의 무료 개방으로 귀성 차량 운집에 따른 주차난이 해소되고, 시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이지콜'과 마을버스 '바로온'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멈추지 않고 교통약자와 시민을 위해 전주시 구석구석을 누빌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 중증 장애인 찾아가는 낙상 예방사업 추진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찾아가는 장애인 낙상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로 인해 낙상에 취약한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인력과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자택을 방문해 낙상 위험 요소를 점검한 뒤 낙상 예방 교육과 방지용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보건소는 장애인들이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 등을 지도하고, 장애인의 자택 내 낙상 위험 공간이 발견될 경우에는 전 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4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